

#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鄭賢宇\* · 河鍾郁\* · 金基洙\*\*

## A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shery Firms

Chung, Hyun-Woo, Ha, Jong-Wook, and Kim, KiSoo

I. 序 論	目 次	V. 結 論
II.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現況		參考文獻
III. 海外漁業投資 決定要因 分析模型		Summary
IV. 實證分析結果		

### I. 序 論

우리나라 海外投資에 관한 研究는 주로 海外投資理論의 文獻的 考察이나 特定產業에 있어서의 海外投資의 目的이나 動機 및 實態 파악이 대부분이었고 實證分析은 시도된 바가 거의 없었다.

本 論文은 기존의 海外投資에 관한 一般理論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에 관한 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즉 海外漁業投資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遠洋漁業體를 대상으로 設問紙調查를 토대로 海外漁業投資의 目的, 動機, 企業特有的 優位要素, 所有權 政策, 投資危險의 認識 및 管理方法, 投資決定時 考慮要素를 알아보고 海外漁業投資의 決定要因分析을 시도하였다.

本 論文은 5장으로 구성되며 II장에서는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現況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 決定要因의 分析模型을 설명한다. IV장에서는 實證分析結果를 설명하며 V장에서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釜山水產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釜山水產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 II.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現況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는 1971년 韓國水産開發公社가 싱가포르에 냉동판매를 위한 해외투자자가 효시이나 1977년을 전후하여 세계 주요연안국들이 200해리 수역을 선포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말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는 <表II-1> 및 <表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投資件數 83건에 청산 35건이 이루어져 잔존 투자상황은 총48건에 금액은 87,752천불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海外 總投資金額의 약 3.8%에 해당되며 건수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인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海外漁業投資는 타산업과는 달리 투자대상 현지국에 특별한 설비나 개발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건수, 금액 모두에서 전산업에 대한 비중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전 산업에 대한 漁業投資의 比率의 年度別 推移를 살펴보면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가 시작된 1977년 28.3%로 가장 높았으나 2차 석유파동이 있는 1980년도 이후에는 어업비용 상승

<表II-1> 年度別 海外投資中 漁業投資比重 金額單位：千弗

년도	구분	全 產 業		漁 業		B/A(%)
		件 數	金 額(A)	件 數	金 額(B)	
1971 <sup>1)</sup>		19	14,314	1	84	0.6
1972		13	5,115	2	539	10.5
1973		11	3,907	2	342	8.8
1974		19	18,149	-	-	-
1975		20	14,171	3	237	1.7
1976		46	8,220	6	105	1.3
1977		53	17,795	4	5,027	28.3
1978		86	43,418	5	1,363	3.1
1979		52	22,772	3	2,616	11.5
1980		44	21,095	2	149	0.7
1981		45	40,077	4	187	0.5
1982		50	129,375	1	31	0.0
1983		60	113,163	6	150	0.1
1984		46	56,974	-	73	0.1
1985		40	117,822	2	2,089	1.8
1986		50	171,999	3	3,831	2.2
1987		91	397,235	4	3,329	0.6
1988		165	212,919	4	13,618	6.4
1989		254	492,496	9	39,349	8.0
1990		368	1,019,744	17	23,853	2.3
누계		1,532	2,920,760	83	96,052	3.3

자료 : 해외투자통계연보, 1989, 한국은행,  
수출입은행(1990).

과 국제경기의 불황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해외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0년도 후반부터 다시 해외 어업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중반이후로 뚜렷해지고 있는 연안국의 資源保護主義의 강화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의 불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遠洋漁業의 주어장이던 美經濟水域內的 북양어장 상실과 베링공해조업에 대한 미·소양국의 규제 및 북양 오징어 유자망, 포클랜드수역, 북서 대서양 공해조업 등이 연안국들의 규제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既存 漁場도 과도한 入漁料 요구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고 人件費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이의 타개책으로 해외어업투자가 시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198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投資件數는 2배이상으로 投資金額은 3배이상으로 신장되었으며 1990년에는 투자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작아졌지만 건수는 2배정도 늘어난 실정에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海外漁業投資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地域別 海外漁業投資現況을 <表II-3>에서 살펴보면 건수 및 금액 모두에 있어서 중남미와 북미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남미 특히 파나마의 外國人 投資開

<表II-2> 年度別 海外漁業投資 狀況 金額單位：千弗

구분 년도	總 投 資		清算等		殘存投資		殘存投資累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1971	1	84	-	-	1	84	1	84
1972	2	539	-	-	2	539	3	623
1973	2	342	-	-	2	342	5	965
1974	-	-	-	-	-	-	5	955
1975	3	237	1	5	2	232	7	1,197
1976	6	105	-	-	6	105	13	1,302
1977	4	5,027	1	36	3	4,991	16	6,233
1978	5	1,363	1	39	4	1,324	20	7,617
1979	8	2,616	-	-	8	2,616	28	10,233
1980	2	149	7	1,349	△5	△1,200	23	9,033
1981	4	187	2	18	2	169	25	9,202
1982	1	31	1	20	0	11	25	9,213
1983	6	150	1	68	5	82	30	9,295
1984	-	73	3	48	△3	25	27	9,320
1985	2	2,089	4	5,207	△2	△3,118	25	6,202
1986	3	3,831	2	75	1	3,754	26	9,956
1987	4	2,329	2	73	2	2,256	28	12,212
1988	4	13,618	4	240	0	13,378	28	25,590
1989	9	39,349	3	818	14	23,035	48	87,752
1990	17	23,853	3	818	-	-	48	87,752
총계	83	96,052	35	8,300	48	87,752	48	87,752

자료 : 해외투자통계연보, 1989, 한국은행, 수출입은행(1990)

放政策과 과거 우리 원양어업의 황금어장이었던 북양어장의 상실위기로 인한 漁場確保次元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投資比率別 海外漁業投資現況을 <表II-4>에서 살펴보면 1989년 기준으로는 100%의 지분을 所有한 경우가 총건수의 46%를 차지하고 다음 순서로는 50%초과 100%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차지하고 있다. 運營權을 장악할 수 있는 50%이상의 지분투자가 총 건수의 78%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投資規模를 보면 <表II-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백만불이하 투자건수가 절반이 넘는 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아직도 영세규모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업종의 성격상 사업투자규모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表II-3> 海外漁業投資의 地域別 許可 및 投資現況 金額單位：千弗

지역	항목	허 가		투 자		비 중(%)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동 남 아		10	10,895	7	3,739	14.6	4.3
중 동		0	0	0	0	0	0
북 미		12	28,300	11	26,300	22.9	30.0
중 남 미		34	66,964	25	56,874	52.1	64.8
유 럽		0	0	0	0	0	0
아프리카		2	71	2	71	4.2	0.1
대 양 주		3	768	3	768	6.3	0.9
총 계		61	106,998	48	87,752	100	100

자료 : 수출입은행 (1990).

<表 II-4> 投資比率別 海外漁業投資現況 金額單位：千弗

비율 항목	20% 미만	20%이상 ~50%미만	50%	50%초과 ~100%미만	100%	계
건 수	2	7	3	10	19	41
금 액	3,850	12,267	3,159	6,225	59,327	84,828

자료 : 해외투자통계연보, 1989, 한국은행.

<表 II-5> 投資規模別 海外漁業投資現況(1989년말 기준) 金額單位：千弗

규모 항목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
건 수	25	7	3	2	4	41	
금 액	5,909	9,786	8,000	13,470	47,633	84,828	2,069

자료 : 해외투자통계연보, 1989, 한국은행.

### III. 海外漁業投資 決定要因 分析模型

현재까지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대부분은 遠洋漁業의 代替手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200해리 海洋法 時代의 도래와 더불어 遠洋漁業의 經濟環境變化로 인한 遠洋漁場의 喪失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海外漁業投資가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海外漁業投資가 타산업과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 一次産業인 水産業이지만 利潤을 추구하는 資本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海外投資에 관한 理論의 適用範圍를 벗어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背景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決定變數를 기존의 海外投資理論에서 추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假說的 模型을 만들고자 한다.

#### 1. 決定要因變數의 選定

海外漁業投資는 여타산업의 海外投資와 같이 크게 나누어 投資對象國 要因(location-specific factors)과 企業內的 要因(firm-specific factors)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Dunning, 1980).

우선 投資對象國 要因으로서의 첫째로 200해리 經濟水域宣布에 따른 入漁上의 問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가 200해리 海洋制度의 汎世界的 擴散과 궤를 같이하여 전수와 금액 모두가 증대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것의 영향이 심대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로 말미암아 入漁料가 급증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入漁禁止區域의 擴大로 아예 入漁자체가 불가능해진 국가도 생겨나게 되자 이의 對應手段으로 遠洋業體들은 海外直接投資를 확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한편 入漁料 상승은 원양어업 비용상승 이외에도 연안국의 貿易障壁強化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원양어획물을 대부분 현지 연안국에 수출하는 경우 入漁料의 상승은 그 어획물에 대한 일정액의 輸入關稅를 추가로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안국 해역의 入漁料는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變數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가 遠洋漁場의 喪失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資源市場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海外漁業投資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상징하는 變數로서 원양어획물의 國內搬入比率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國內搬入比率가 높다는 것은 그 어류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거나 여타 수산가공업에 중요한 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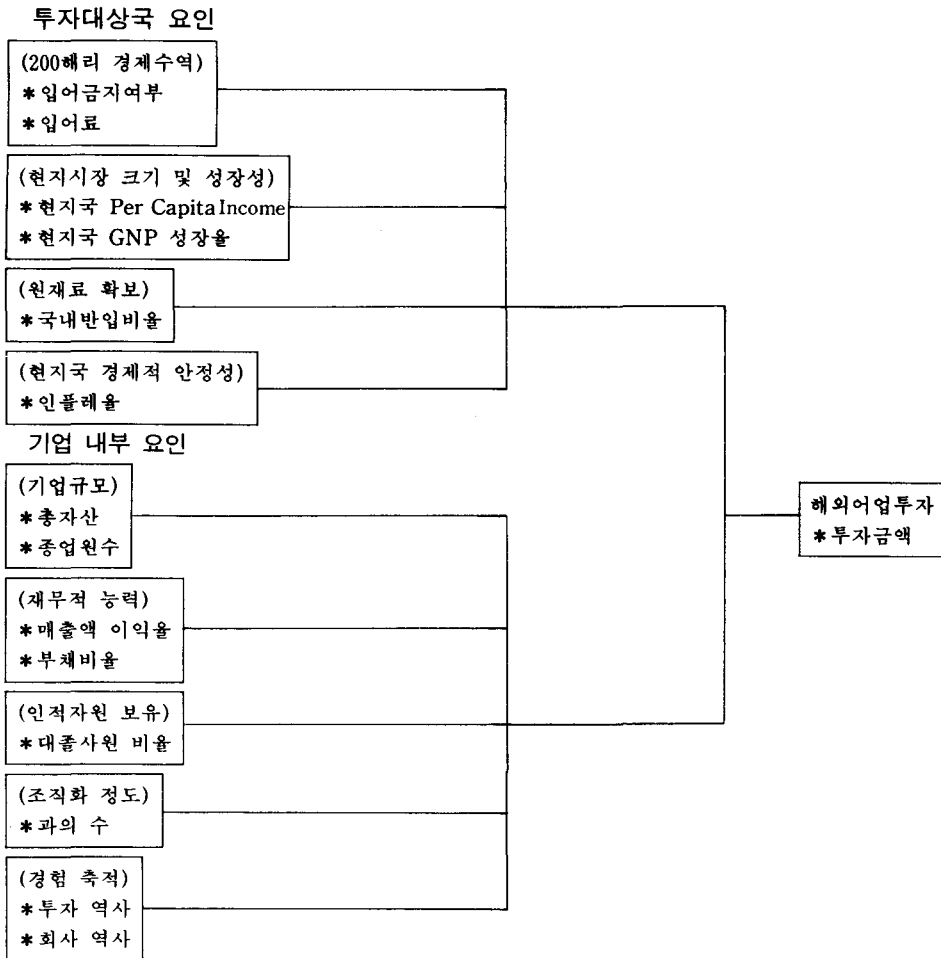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海外漁業投資가 원양어획물의 안정적인 海外消費市場의 확보를 위해 이루어지

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인과 관련된 變數로서 現地市場의 크기 및 成長性을 나타내는 現地國民의 1人當 國民所得(Per Capita Income)의 크기나 經濟成長率(GNP Growth Rate)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投資危險度가 投資決定時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變數로서 現地國의 經濟安定性 與否를 상징하는 現地國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海外漁業投資를 가능케 하는 企業特有的 優位要素는 여러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一般的으로 企業의 規模를 살펴봄으로써 그 產業內에서의 위치 및 分業과 專門化의 정도 등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같은 企業規模를 상징하는 變數로서 總資產(Asset) 및 總從業員數(Employees)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換率變動에 따른 通商프리미엄, 저렴한 資本調達費用, 營業활동의 지역적 분산

<表 III-1> 海外漁業投資 決定要因 研究模型



을 통한 危險分散 및 이익흐름의 안정화 등의 財務 및 貨幣的 優位要素를 살펴보기 위해서 財務收益性을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賣出額 利益率(Return on Sales)을, 財務安定性을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負債比率(Debt Ratio)을 각각 선정하였다.

그리고 海外直接投資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全世界的인 組織網과 이를 활용한 우수한 情報蒐集 및 分析能力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변수로서 人的資源能力은 大卒社員比率(College Graduates Ratio)로서, 그리고 組織化의 정도로서는 課의 數(Departments)를 각각 선정하였다.

그밖에 회사를 운영해온 경험 혹은 해외투자 경험 등이 중요한 우위요소가 될 것으로 보아 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회사존립기간(Establishment History) 및 회사투자 역사(Investment History)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투자대상국 요인 및 기업내부요인을 나타내는 제변수의 관계는 <表I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 變數의 測定

### 1) 從屬變數

종속변수는 해외어업투자(Fishe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FDI)이며 해외어업투자에 대한 변수는 投資金額으로 측정하였다.

### 2) 獨立變數

#### (1) 入漁問題

입어상의 문제는 入漁料支拂要求의 상황을 중요시하여 입어료 지불액 (Payment: PMT)으로 측정하였다.

(2) 現地市場의 크기=1인당 國民所得(Per Capita Income: PCI)

(3) 現市場 成長性=總國民 生産額 增加率(GNP Growth Rate: GNPR)

(4) 現地國 經濟의 安定性=인플레이션(Inflation Rate: INF)

(5) 原料確保의 정도=어획고의 國內搬入比率(Import Ratio for Domestic Market: DOM)

(6) 企業規模=총자산(Asset: AST), 총종업원 수(Employees: EMP)

(7) 財務的 能力

財務 收益性: 賣出額 利益率(Return on Sales: ROS) = 당기순이익 ÷ 총매출액 × 100(%)

財務 安定性: 부채비율(Debt Ratio: DBT)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8) 人的 資源能力=大卒社員 比率(College Graduates Ratio: COL)

(9) 組織化 정도=課(Departments: DEPT)의 數

(10) 經驗蓄積=회사 존립 기간(Establishment History: HIS)

회사 투자 역사(Investment History: INVHIS)

### 3. 模 型

$$Y_{i,t} = a + b_1 X_{1,i,t} + b_2 X_{2,i,t} + \dots + b_n X_{n,i,t} + e$$

$Y_{i,t}$  = 기업 i의 t년도의 해외어업투자 금액,

$X_1, X_2, \dots, X_n$  = 독립변수, e는 error term.

### 4. 資料蒐集

調査對象은 1990년 5월말 해외어업투자를 하고 있는 30개 遠洋業體의 48건(한국은행, 1990)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1990.6.10~7.16동안 우편조사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回信率이 낮아 부득이 2차로 1990.10~1991.1에 걸쳐 設問紙 調査를 실시하였는 바, 15개사로부터 回信을 받았으나 유효 설문지는 13개사 17건(회수율: 35%)에 달하였다.

設問紙 作成은 海外投資理論과 遠洋業體 및 協會와의 訪問面談 結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設問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해외투자목적, 동기 등에 관한 의견조사이었으며 다른 부분은 해외투자 결정요인 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접근을 위한 조사이었다(부록 참조).

資料蒐集은 우편조사방법(mail survey)를 채택하였다. 蒐集된 資料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IV. 實證分析結果

### 1. 設問項目別 頻度分析

海外漁業投資에 대한 意見調査項目들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海外漁業投資의 目的

<表IV-1>에서와 같이 優先順位別로 살펴 본 우리나라의 해외어업직접투자의 目的은 漁場確保, 生産費 節減 및 利潤增大, 會社의 成長, 販賣市場의 擴大 그리고 危險分散의 順序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장확보의 목적이 가장 두드러져 1순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해외어업투자가 주로 資源指向의 投資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의 해외어업투자가 본격적으로 200해리 해양법시대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表IV-1〉 海外漁業投資의 目的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어 장 확 보		12	1	2	1	0
판 매 시 장 의 확 대		0	3	1	4	4
회 사 의 성 장		2	3	6	3	0
생 산 비 절 감 · 이 운 증 대		2	5	3	1	1
위 험 분 산		0	2	0	3	7
계		16	14	12	12	12

일맥상통한 결과로 보여진다.

2) 海外漁業投資의 動機

〈表IV-2〉에서와 같이 우선 순위별로 살펴보면 漁業規制를 피하기 위한 동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9%). 그 다음으로는 原料確保, 規模의 經濟實現, 競爭企業의 海外進出, 低賃金 및 政府의 投資促進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IV-2〉 海外漁業投資의 動機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어 업 규 제		11	1	0	1	0	0
원 료 확 보		2	5	2	0	1	2
저 임 금		0	3	0	1	1	6
정 부 의 투 자 촉 진		0	1	3	1	5	0
경 쟁 기 업 의 해 외 진 출		1	3	3	3	2	1
규 모 의 경 제 실 현		2	0	4	5	1	1
계		16	13	12	11	10	10

여기서도 앞서 해외투자의 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로 인한 입어료의 상승 및 조업금지 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한 遠洋漁場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해외어업투자의 주요동기가 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제한적인 분석일지도 모르지만 1순위에 저임금이나 정부의 투자촉진을 동기로 이루어진 투자는 한 건도 없고 어업규제와 원료확보의 동기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200해리 해양법시대의 도래라는 환경변화가 없었다면 우리의 원양업체들은 해외직접 투자보다는 既存의 遠洋漁業을 強化하는 방향으로, 즉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單純入漁(어획량, 척수 기준 입어료 지불형태)나 形式的 備船(기간용선), 協力漁業(쿼타배정)쪽으로 나갔으리라 추측된다.

## 3) 海外漁業投資의 比較優位要素

해외투자를 하게 된 투자업체의 比較優位順序는 <表IV-3>에서와 같이 漁業技術 또는 經驗, 現地國에 대한 情報, 資金, 經營組織과 管理能力 순위로 나타나 있다.

<表IV-3> 海外漁業投資의 比較優位要素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술 (경험)		8	3	3	0	0
경영조직과관리능력		1	4	5	2	0
자금		2	1	3	5	1
현지국에 대한 정보		4	4	1	3	1
해외지명도		0	0	0	2	10
계		15	12	12	12	12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30년 이상의 오랜 遠洋漁業의 歷史를 통하여 축적한 어획기술과 현지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비교우위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원양업체의 대부분이 中小企業에 지나지 않고 있고 원양어업허가제로 인하여 원양어업에 대한 신규기업의 참여가 대부분 봉쇄되어 있던 까닭으로 산업체질의 강화가 어려웠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既存 遠洋業體가 대부분인 해외어업투자업체들이 경영조직과 관리능력이나 자금면에서 비교우위를 찾기는 어려웠으리라 분석된다.

## 4) 海外漁業投資方法 및 所有權 分析

<表IV-4>에서와 같이 해외투자의 방법은 주로 合作投資의 형태이고 나머지는 單獨投資의 형태로 시행하였다. 합작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所有權 持分이 49~50%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表IV-4> 海外漁業投資方法

항목	숫수	숫 수	49%이하	50%이상
기 존 회 사 의 인 수		0	·	·
기 존 회 사 의 합 병		0	·	·
합 작 투 자		10	3	7
단 독 투 자		6	3	3
계		16	6	10

이는 해외어업투자업체들이 위험부담이 높은 기존회사의 인수 혹은 합병 보다는 合作投資나 單獨投資를 선호하되 합작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역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投資對象國이 대부분 政情이 불안한 파나마,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임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된다.

5) 海外漁業投資 決定時 考慮事項

해외투자결정시 투자업체의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表IV-5>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요인보다도 投資의 收益性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投資의 危險度, 그 다음으로는 市場性과 投資環境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무역장애요인이나 비용요인 등은 차선적인 고려대상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결정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익성과 투자위험도가 해외어업투자의 결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表IV-5> 海外漁業投資 決定時 考慮事項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수익성(경제성)		13	0	3	0	0	0
위험(국유화, 송금제한, 운영제한 등)		1	4	1	1	1	7
투자환경(하부구조, 세계혜택, 문화적인 인접성등)		1	2	3	5	4	0
시장성(크기, 성장등)		1	2	4	2	4	2
무역장애요인(국산화, 수입제한등)		0	2	3	4	3	4
비용요인(원료조달, 노동, 기술, 수송비 등)		0	6	1	3	3	1
계		16	15	15	15	15	14

그러나 수익성의 비중에 대해 투자위험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한 것은 후에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서 언급될 것이지만 투자업체들이 현지 정부와의 교섭등을 통해 投資에 대한 安全保障을 확약받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海外漁業投資 決定時 收益性 檢討資料

<表IV-6>에서와 같이 해외어업투자업체들이 해외투자 결정시의 收益性 檢討資料의 우선순위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海外漁業投資決定時 危險의 重視順位 및 이의 克服 方案

<表IV-7>에서와 같이 해외어업투자업체들이 投資危險度를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강제수용이나 국유화조치 또는 전쟁 등으로 인한 政治的 不安定性에서 오는 위험과 투자파트너의 信用

〈表IV-6〉 海外漁業投資 決定時 收益性 檢討資料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추 정 재 무 재 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2	4	2	4
대 금 상 환		2	4	2	4
순 현 재 가 치		3	2	4	3
내 부 수 익 율		4	5	2	2
계		15	14	11	10

〈表IV-7〉 海漁業投資決定時 危險重視順位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정치적 위험 (수용, 국유화위험, 전쟁위험등)		8	3	1	2
상업적 위험 (경쟁, 파트너의 신용위험등)		7	5	3	0
통화위험 (환율변동, 인플레이 위험)		0	3	5	5
법률, 문화적 위험		0	3	4	6
계		15	14	13	13

〈表IV-8〉 危險을 줄이기 위한 方案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소유권 지분의 최소화		1	0	4	1	0	4
점진적 해외진출 (투자액의 점진적 증액등)		5	6	2	1	0	0
현지정부와 교섭 (투자보장)		7	3	3	0	1	0
본원투자보다 매입투자		0	0	0	6	2	2
보험제도의 활용		1	1	1	0	4	3
관련산업의 동반투자		1	4	1	2	3	1
계		15	14	11	10	10	10

危險등의 商業的 危險이다. 이것은 우리의 海外漁業投資가 資源確保形 投資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그 對象國이 주로 중남미제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에 치중되어 있는 까닭에서 연유된 것 같다.

따라서 이의 해결방안으로서도 〈表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정부와의 교섭으로 元金 回收나 過失送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먼저 얻은 다음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대상국의 정

치적 상태를 고려하여 投資金額을 점진적으로 늘여감으로써 투자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그 밖에 關聯產業에 대한 同伴投資나 保險制度의 활용 또는 所有權 持分의 최소화를 통하여 서도 투자위험을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국유화의 위험성이나 정치적 격변 등의 극심한 진출장애요인은 상당히 소멸될 것 같으나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및 外債와 낙후된 產業構造 등에 대한 고려도 투자위험의 고려시 증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 2. 海外漁業投資 決定要因分析

### 1) 相關分析

海外漁業投資의 決定要因을 모색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선정된 變數間 相關關係를 분석해 보았다. 從屬變數인 海外投資金額과 假說的 獨立變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난 후 獨立變數間 相關關係도 검토해 보았다.

<表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外漁業投資와 統計的으로 유의적인 說明變數들은 DEPT(과의 수), EMP(종업원 수), 그리고 COL(대졸사원비율)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모두가 正(+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FFDI가 DEPT와의 相關係數가 0.79570로서, 높은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會社 組織이 잘 정비되어 세분화되므로써 海外投資情報의 수집능력과 해외투자를 위한 戰略開發能力이 높아지게 되어 海外漁業投資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FFDI가 EMP(종업원수)와 0.67539의 높은 正(+ )의 相關關係를 보인 것은 從業

<表IV-9> 海外漁業投資 金額 變數(FFDI)와 獨立變數間 相關分析結果

독립변수	상관계수
HIS(회사역사)	0.36764
PMT(입어료)	-0.15143
DOM(국내반입비율)	0.21775
INVHIS(해외투자역사)	-0.17519
EMP(종업원수)	0.67539*
COL(대졸사원비율)	0.44971***
DEPT(과의 수)	0.79570*
AST(총자산)	0.34695
DBT(부채비율)	-0.01519
ROS(매출액이익율)	-0.14401
PCI(현지국의 1인당 소득)	0.05253
GNPGR(경제성장율)	0.01407
INF(인플레이션)	0.39055

\*P < 0.01, \*\*P < 0.05, \*\*\*P < 0.1.

〈表IV-10〉 海外投資要因間의 相關變數

	HIS	PMT	DOM	INVHIS	EMP	COL	DEPT	AST	DBT	ROS	PCI	GNPR	INF
HIS (회사역사)	.												
PMT (임어료)	-0.7577	.											
DOM (국내반입비율)	**	-0.21332	.										
INVHIS (해외투자역사)	***	***	***	.									
EMP (종업원수)	*	-0.06706	-0.10995	0.05581	.								
COL (대출사원비율)	**	-0.48533	-0.32045	0.09821	0.32768	.							
DEPT (과의 수)	*	-0.29164	0.10651	0.01613	0.86020	*	.						
AST (총자산)	**	0.03117	-0.21683	0.03598	**	0.34147	**	.					
DBT (부채비율)	0.17949	0.01907	0.02328	-0.18326	0.32699	-0.21477	0.09650	0.04915	.				
ROS (매출액이익률)	-0.02094	-0.01257	-0.20647	-0.25072	-0.04897	-0.17772	-0.17650	-0.02615	0.00941	.			
PCI(현지국1인당 소득)	**	-0.17618	-0.23675	0.10166	0.23343	0.39922	0.31978	**	**	0.57013	.		
GNPR (경제성장률)	***	0.05862	0.46949	-0.09729	-4.0564	-0.10674	-0.24876	-0.06167	0.13554	-0.38240	0.16830	.	
INF (인플레이션)	0.24917	-0.10603	0.15235	-0.22155	0.32239	0.04155	0.1707	0.04609	-0.10769	0.03451	-0.15853	-0.16984	.

\* P<0.01, \*\* P<0.05, \*\*\* P<0.1.

員數面에서 기업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해외어업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FFDI와 COL이 10%의 有意水準에서 0.44971의 正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專門人力이 해외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 FFDI의 EMP와 的 相關關係를 병합해서 고려할 때 인력이 풍부하고 高級勞動力이 많을수록 해외투자가 용이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企業의 組織的 能力 및 人的 資源能力이 해외어업투자에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入漁料의 上昇이 해외어업투자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先行研究와 斯界의 一般的 假定과는 달리 본 相關分析의 入漁料(PMT)와 海外漁業投資(FFDI)와의 相關關係는 유의적이지 못하였는 바,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는 入漁料 상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IV-10> 및 <表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내포하는 변수는 HIS(8개)와 EMP(2개), DOM(2개)이다.

우리나라의 원양업체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창립된 지 오래된 업체일수록(HIS) 총자산(AST) 및 종업원수(EMP)의 면에서 규모가 크며, 과의 수(DEPT)도 많아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고 대졸사원의 비율(COL)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외투자능력의 보유로 해외투자도 일찍 이루어져 해외투자년수(INVHIS)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어료(PMT)가 해외투자역사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그동안 세계적인 자원 내셔널리즘의 영향으로 입어료가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을 감안한다면 해외투자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입어료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보여진다.

국내반입비율(DOM)이 해외투자역사와 負(-)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해외투자역사가 짧은 기업일수록 단순한 자원확보형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역사가 길수록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많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반입비율(DOM)이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률(GNPR)과 正(+)의 상관관계를

<表IV-11> 상관도가 높은 변수의 수

변수	상관관계가 높은 타 변수
HIS	EMP, DEPT, COL, AST, PCI, DOM, GNPR, INVHIS
PMT	INVHIS
DOM	INVHIS, GNPR
EMP	DEPT, AST
COL	DEPT
DEPT	AST
AST	PCI
DBT	PCI

보인 것은 우리나라 해외어업투자 대상국에서 경제성장율이 높은 나라는 대체로 시장규모가 적은 개발도상국들로서 이들 나라에 대한 어업투자는 대체로 어업자원확보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어획물의 국내반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종업원수(EMP)가 과의 수(DEPT)와 총자산(AST)과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종업원수와 총자산이 모두 기업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어 경영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대출사원비율(COL)이 과의 수(DEPT)와 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조직이 세분화 될수록 그것을 관리운영할 경영능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고급인력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2) 決定要因 模型의 選定

해외어업투자의 결정요인 모형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어업투자(FFDI)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해외투자 영향변수들을 가설적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Regression 기법을 이용, 최적 회귀식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表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pwise Regression 분석결과 DEPT와 DOM 이 5% 유의水準 범위내에서 해외어업투자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이 선정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한 결과는 〈表IV-13〉과 같다.

따라서 overall significance test 결과 선정된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의 F-value 가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表IV-12〉 Stepwise Regression의 결과 요약

선정 변수	회귀 계수	R-square	F-value	P>F
DEPT	254.3301	0.6306	32.85	.0001
DOM	19.9494	0.7419	5.61	.0341

intercept = -1061.9511 ; 5%수준에서 유의적.

〈表IV-13〉 AVONA결과 요약

모형 :  $FFDI = b_0 + b_1DEPT + b_2DOM + e$

F-value	P>F
18.519	0.0001

독립변수	T-value	P>ITI
DEPT	5.884	0.0001
DOM	2.173	0.0474
INCERCERT	-2.235	0.0422



또한 선정된 두 변수와 상수의 t-value가 <表IV-13>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에 의한 해외어업투자의 설명능력은 74.19%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적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FFDI = -1061.9511 + 254.3301DEPT + 19.9494DOM$$

## V. 結 論

以上에서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 역시 일반적인 海外投資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投資對象國要因과 企業內部要因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企業內部要因이 보다 重要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투자대상국요인으로서는 어획물의 國內船入比率이 기업내부요인으로서는 組織上의 課의 數가 統計적으로 의미있는 變數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海外漁業投資가 대부분 資源確保型 投資이며 企業規模가 크며 우수한 人的 資源을 많이 보유하고 組織이 잘 정비된 기업일수록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理論構成에서 重要要因으로 보았던 入漁料는 海外漁業投資 金額의 規模를 決定하는데는 유의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 研究는 統計分析에 있어 標本의 數가 절대적으로 적어 그 結論의 妥當性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選定된 決定要因變數와 또 回歸係數는 標本의 數에 민감할 것으로 보이는 바 本研究의 一般化는 상당한 制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標本數를 대상으로 精確性이 높고 統計的 結論의 妥當性과 外的妥當性을 높일 수 있는 研究가 앞으로 요망된다.

本 研究는 비록 제한적인 實證分析이지만 우리나라 海外漁業投資의 性격을 이해하고 이에 입각하여 海外漁業投資戰略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 國內 文獻 —

1. 國際水產開發研究院, 漁業水域總覽, 法文社, 1980.
2. 金會千, “韓國 水產業의 海外進出戰略에 관한 研究,” 수산경영론집, Vol. 15, No. 1, 1984, 6.
3. 朴九秉 외 18人, 韓國 水產史, 水友會, 1987.
4. 朴基岸, 國際 마아케팅론, 貿易經營社, 1984.

5. 朴基岸, 國際 經營者論, 貿易經營社, 1986.
6. 徐相龍, “Business Investment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서울大 經營研究所, 經營論集, 1971.
7. 水產廳, 水產統計年報, 1991.
8. 元種根, “海外投資理論의 文獻的 考察,” 貿易學會誌, 제12권, 1987.
9. 元種根, “韓國 纖維産業 海外直接投資의 行態와 戰略,” 貿易學會誌, 제14권 1989.
10. 李贊九, 海外直接投資와 多國籍 企業論, 서울 에코노미아, 1984.
11. 先尤一 외 3人, 海外 合作事業의 効率의 推進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12. 趙東成, 河種郁, 國際經營者論, 英志文化社, 1983.
13. 趙東成, 國際經營事例集, 서울大, 經營大學, 1982.
14. 池應祥, “200海里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關한 小考,” 水產經營論輯, Vol. 15, No. 1, 1984. 6.
15. 河種郁, “企業 國際化過程의 모델에 關한 研究,” 釜山水大 論文集, 제42집, 1980.
16. 河鍾郁, “海外市場 進出의 選定에 關한 研究,” 釜山水大 論文集, 제30집, 1983.
17. 韓國銀行, 海外管理部, 海外投資事業 清算現況, 1985.
18. 韓國遠洋漁業協會, 遠洋漁業統計, 1990.
19. 하정관표편역, 北太平洋漁業, 北洋共同事業 推進委員會, 1984.

— 外國 文獻 —

1. 日本 水產社, 水產年鑑, 1990.
2. 大海院 외 4명, 現代 水產經濟論, 北豆書房, 1982.
3. 國際 漁業 研究會, 國際 漁業의 研究, (1)(2), 恒星社, 厚生閣, 1986~87.
4. 清光早夫, 水產 政策論 恒星社, 厚生閣, 1986.
1. Alaska Sea Grant, International Sea Food Trade Conference Report, No. 83~2, 1983.
2. Anderson, L. G., *The Economics of Fisheries Management*,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 London, 1977.
3. Caves, R. 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84.
4. Clark, C. W., “The Economics of Fishing and Modern Capital Theory,”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975. pp. 29~106.
5. Dahmani M., *The Fisheries Regim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 Nijhoff Publishers, 1987.

21. Riedel, J.,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Export-Orient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 Developing Country : A Case Study of Taiwa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Review of World Economics*, No. 3, 1975.
22. Rugman, *International Business : Firm and Environment*, McGraw-Hill Book Co, 1985.
23. Stokes, R. L., "The New Approach to Foreign Fisheries Allocation," *Land Economics*, Vol. 57, No. 4, 1981.
24. Scaperlanda, A. E., "The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No. 4, 1972.
25. Scaperlanda, A. E., and R. S. Balough, "Determinants of U.S. Direct Investment in the E.E.C. : Revisted," *European Economic Review*, No. 21, pp. 381-390.
26. U. S. Dept. of Commerce/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vestment Climate in Foreign Countries*, Vol. IV, 1980.

<부 록>

한국의 해외어업투자에 관한 설문조사

I. 일반적 접근을 위한 자료

※ ( ) 속에 1, 2, ...순서로 답해주십시오.

1. 해외투자 목적의 우선순위는?
  - ( ) 어장확보
  - ( ) 판매시장의 확대
  - ( ) 회사의 성장
  - ( ) 생산비 절감, 이윤증대
  - ( ) 위험분산
2. 해외투자 동기(이유)의 우선순위는?
  - ( ) 어업규제
  - ( ) 원료확보
  - ( ) 저임금
  - ( ) 정부의 투자촉진
  - ( ) 경쟁기업의 해외 진출
  - ( ) 규모의 경제 실현
3. 해외투자를 하게된 귀사의 비교 우위요소 순위는?
  - ( ) 기술(경험)
  - ( ) 경영조직과 관리능력
  - ( ) 자금
  - ( ) 현지국에 대한 정보
  - ( ) 해외 지명도
4. 해외투자 방법은? (0표로 표시바람)
  - 1) ( ) 기존회사의 인수
  - 2) ( ) 기존회사의 합병
  - 3) ( ) 합작투자
  - 4) ( ) 단독투자
5. 위 4의 1)~3)의 경우 귀사의 소유권 지분은?  
( )%

6. 위 5와 같이 하계된 사유는?
7. 해외투자 결정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는?  
( )수익성(경제성)  
( )위험(국유화, 송금제한, 운영제한 등)  
( )투자환경(하부구조, 세제혜택, 문화적인접성 등)  
( )시장성(크기, 성장등)  
( )무역장애 요인(국산화, 수입제한 등)  
( )비용요인(원료조달, 노동, 기술, 수송비 등)
8. 해외투자 결정시 수익성 검토자료의 순위는?  
( )추정 재무재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대금상환  
( )순 현재 가치  
( )내부 수익율
9. 해외투자 결정시 다음 위험의 중시 순위는?  
( )정치적 위험(수용, 국유화위험, 전쟁위험 등)  
( )상업적 위험(경쟁, 파트너의 신용위험 등)  
( )통화 위험(환율변동, 인플레이위험)  
( )법률, 문화적위험
10.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중점 순위는?  
( )소유권 지분의 최소화  
( )점진적 해외진출(투자액의 점진적 증액 등)  
( )현지 정부와의 교섭(투자보장)  
( )본원투자 보다 매입투자.  
( )보험제도의 활용  
( )관련 산업의 동반투자.

II. 통계적 접근을 위한 자료

A.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창립년도는? 19    년
2. 투자년도는? 19    년
3. 투자년도의 총 종업원수는? (    )명

총 종업원중 대졸사원의 비율은? ( )%

4. 투자년도의 회사조직상의 부와 과의 숫자는?

( )부 ( )과

5. 투자년도의 총매출액과 총이익 및 해외정보수집비의 규모는?

총매출액 \_\_\_\_\_천원

총이익액 \_\_\_\_\_천원

해외정보수집액 \_\_\_\_\_천원

6. 투자년도의 총자산 및 총부채액 규모는?

총자산액 \_\_\_\_\_천원 총부채액 \_\_\_\_\_천원

※기타 재무분석을 투자년도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B. 투자대상국의 개황

1. 해외투자도, 국명, 업종, 투자금액은?

19\_\_\_\_년도, \_\_\_\_\_국, \_\_\_\_\_업, \_\_\_\_\_천U\$

2. 투자년도의 투자대상국의 입어 상황은 어떠했는지 해당기호에 ○표 해주십시오.

1) 입업금지 2) 쿼타부과 3) 입어료 지불시 무제한 조업

4) 귀타+입어료 5) 기타

3. 투자대상국 해역의 입어료 지불총액은?

투자전년도 \_\_\_\_\_천 US\$

투자년도 \_\_\_\_\_천 US\$

4. 투자전년도의 투자대상국 해역에서의 귀사의 총어획고 및 수출과 국내 반입 비율은?

총어획고 \_\_\_\_\_천\$ 수출( )%, 국내반입( )%

5. 투자전년도의 귀사의 총어획고(투자대상국해역+타해역) 및 수출과 국내반입 비율은?

총어획고 \_\_\_\_\_천\$, 수출( )%, 국내반입( )%

## A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shery Firms

Chung, Hyun-Woo, Ha, Jong-Wook, and Kim, KiSoo

### Summary

This study has made an attempt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FI) by Korean Fishery firms.

The questionnaire survey on individual firm's recognition and the determinants of Foreign Fishery Investment (FFI) was performed, yielding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ain object of FFI is to reserve fishing ground. The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import ratio for domestic market (DOM) is a significant variable of FFI. These two facts indicate our FFI is resource-oriented in terms of the object and motive.

Second, FFI is primarily determined by firm-related factors rather than country-related factors. The significant variable in firm-related factors is the number of departments of the investing firm (DEPT).

Another notable result is that fishing fee is not an influential variable in FFI decision.